

# 시간에 묻히기 전 기억의 창고에 저장한 풍경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사라져 가는 풍경들

이용한 지음

“사실이 세계는 무수한 사라짐 속에서 구축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했던 그것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내가 목도한 슬픈 풍경이 시간의 무덤에 묻히기 전에 이렇게 기억의 창고에 하나씩 저장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늘 그랬듯 우리는 시간 앞에서 슬퍼할 겨를이 없다.”(본문 중에서)

초가, 흙집, 굴뚝, 맷돌, 확독, 아궁이, 부뚜막, 다랑논, 물레방아... 70-80년만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물이나 풍경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민속마을이나 박물관에 가야 겨우 볼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주는 변화를 막아내기는 힘들다. 오늘에는 사라져버렸지만, 예전에는 분명 그 자리에 익숙한 사물과 풍경들이 있었다.

15년에 걸쳐 발로 찾아낸 옛 풍경에 대한 기록이 책으로 묶여졌다. 제목부터 향수를 자극하는 ‘사라져 가는 풍경들’은 멈춰진 시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여정이다. 시인이자 여행자인 이용한 작가는 그동안 고양이 에세이를 썼다. ‘고양이 작가’로 불리는 그는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 ‘꾼’, ‘장이’, ‘옛집’



기행’ 등 다수의 문화기행서를 출간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됐다.

첫 장에는 ‘옛집 풍경’이 나온다. 초가와 셋집, 굴너와집, 흙집 등이 다뤄진다. 오막살이, 초가삼간이라는 말처럼 초가는 화려한 집은 아니다. 흙과 나무, 짚으로 지었는데 우리 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재료들이다. “신성함을 지붕에 올림으로써” 하늘을 표현한 집이 바로 초가다. 그러나 초가를 없애면서 서민의 주거문화와 풍속도 사라졌다.

고추를 뿜고 콩을 갈던 맷돌과 확독에 대한 단상도 눈길을 끈다. 요즘처럼 분쇄기가 없던 시절, 어머니들은 번거로웠던 맷돌질을 해야 했다. 맷돌과 질구의 중간 형태인 확독은 주로 양념을 짤 때 사용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맷돌과 확독이 환기하는 시골의 추억은 아련함을 준다.

2장 ‘그 밖의 풍경들’에서는 옛집에서 만나는 세간들을 비롯해 닭의 보금자리인 닭동우리, 방안을 밝혔던 등잔, 설날에 걸여두었던 복조리 등을 볼 수 있다.

사랑방 노인들이 삼았던 짚신은, 오래 전부터 서민들의 신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옛날 농촌에서 짚신을 삼았는데 농한기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짚신을 삼아 놓아야 했다. 이제는 위물이 돼버린 등잔에 대한 이야기도 정겹다. 일반적인 등잔은 외심지를 썼지만, 불을 밝히기 위해선 쌍심지를 썼다. ‘눈에 쌍심지를 켜다’는 말이 예에서 연유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통을 만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3장 ‘명맥을 잇는 사람들’에서는 떡, 한지, 쌀엿, 전통옹기에 삶을 바친 이들의 사연을 만난다. 번거롭고 일손이 많이 가지만 전통을 잇는 이들에게선 숭고함이 느껴진다.

마지막 장에서는 옛 풍습과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마을안녕을 위해 행해졌던 집안 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당산제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이젠 거의 사라지고 문헌 속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소달구지는 경운기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짐과 곡물을 운반하고 때로는 교통수단으로까지 두 몫을 톡톡히 해냈다. <상상출판 제공>

책을 읽다보면 오늘의 성장과 속도, 소유에 매몰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물론 시간은 지난 과거를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미화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다르다. 오늘 우리가 밭 딛고 선 자리는 얼마 전만해도 삶의 토대가 됐던 그러한 풍경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했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가 꿈꾸는 도시일뿐 오늘날 도시의 모습은 아니다. 자연을 향해 구불구불 이어지던 고갯길은 고속도로에 멸망했고, 산자락을 에둘렀던 다랑논은 공장에 패배했다. 커다란 나무는 베어졌으며 나무에 깃든 신성성도 함께 질려 나갔다.” <상상출판·1만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초월

가이아 빈스 지음·우진하 옮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2020년 최고의 과학 성과로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꼽는다. “연구자들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빈번하게 협력한 적은 없었다”는 언급은 인간이 “지성을 갖춘 사회적 동물”임을 뜻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다.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예민한 후각이나 시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은 유전자, 환경, 문화다’. 영국의 과학 저술가인 가이아 빈스는 ‘초월’이라는 책에서 인류사를 재조명한다. 박생부터 포스트 사피엔스에 이르는 인류사가 특유의 담대한 통찰로 펼쳐진다.

저자는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응의 형태를 진화시켰다고 본다. 그 중심에 ‘문화’가 있었다. 불, 언어, 미, 시간이라는 4가지 문화적 발견은 인간이 우주 객체가 아닌 변화 주체라는 역할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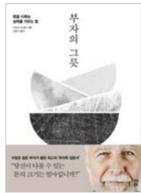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 의미는 유전자를 영구히 보존하는 데 있다. 인간의 문화적 목표는 유전자 선택은 물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까지 이르렀다.

또한 저자는 모든 종을 뛰어넘는 초월종이 된 인간 진화 결과로 ‘인류세’(인간이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된 지구 환경의 변화 시기)가 탄생했다고 본다. 이는 또 다른 초월의 과정을 거쳐 신세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지구와 함께 자멸할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저자는 인류가 가진 가능성을 주목하며 한편으로 인류가 지닌 책임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쌤앤파커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김윤수 옮김

돈의 본질은 신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사람들은 종이나 금속덩이를 돈으로 사용한다. 명품 브랜드나 고급 음식점이 고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용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런 돈의 정체를 알기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신용을 얻는데 기꺼이 투자한다. 그들은 돈의 꿈꾸지만 찾아다니거나 금에 쌓아두지는 않는다.



돈의 본질을 다룬 책 ‘부자의 그릇’은 한마디로 ‘부자의 입문서’다. 일본 파이낸셜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이며 모두 다섯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이즈미 마사토가 저자다.

저자는 지금까지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 스쿨’을 모토로 경제신문을 읽는 법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이번 책은 소설 형식으로 쓴 교양서로 실패한 젊은 사업가가 수수께끼 노인을 만나 나누는 돈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돈을 쓰는 대상의 가치를 분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상대를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이 바로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토대가 된다. 반대로 적용하면, 나 자신이 남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마침내 기회와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이렇듯 저자는 소설 형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부의 놀라운 비밀을 일깨운다. ‘돈을 좇지 말고 신용을 얻어라’,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돈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돈이 저절로 담기게 하라’ 등의 말은 곱씹어볼 만 하다. <다산북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이지영 지음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환경미화, 선거준비, 재난 현장 지원까지 잘하는 것은 없지만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말단 공무원의 일과 삶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낸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가 출간됐다.



11년 차 지방행정직 공무원인 저자 이지영은 2015년부터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 1만여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6개월간 휴직 생활을 담은 ‘서른의 휴직’을 펴냈다.

‘주민센터나 지키는 한직’이라는 시선과 달리, 말단 공무원의 하루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인감증명서,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등 주민들의 삶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기본, 걸핏하면 큰소리는 민원인도 무한 대기 중이다. 철마다 도로변의 꽃들을 바귀 심고, 온갖 행사에 동원돼 종일 밥을 푸기도 한다. 태풍이나 폭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는 무조건 현장 출동이다.

책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직 사회를 향한 젊은 공무원의 쓴소리도 있다. 기상천외한 의전 사례부터 ‘소통 자리’를 마련한다며 원형 탁자에 캐주얼한 간식에만 집착하는 회의 문화, ‘잘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일을 벌이기에 하는 풍조 등.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조직의 불편한 민낯들이 낱알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월급과 수당, 연금, 복장규정, 순환 전보 등 공직자들만 겪는 내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저자는 ‘9급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누군가가 말단 공무원의 일과 삶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면 그들의 삶이 조금은 달랐을까 생각한다’며 “공무원으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기 시작한 이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